

인도네시아의 통상환경과 상관습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Commercial Customs and Practices in Indonesia

김 희 준*
Hee-jun Kim

요 약 (ABSTRACT)

A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 commercial practices and analyze a trade environment for a successful launch of Indonesian market.

In general, Indonesian trade environment is composed of a natural environment, religious peculiarity, history and politic, an economic prospect. In order to understand a commercial practice exactly and then be possible a favorable business achievement, a natural character, a mode of living, custom of a meal and invitation, custom of gift, religious taboo, a human relationship, commercial power, a tendency of product preference should be recognized.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mostly that even though an excellent brand image, a good quality and an efficient sales network are a basic factor for making of a successful business. However practically it is more important to understand a business custom and a natural character of Indonesian. Because business is made up of through relation between human being eventually.

Key Word : A commercial practices, An trade environment, The national character, An economic prospect, Religious peculiarity, A mode of living, A tendency of products preference, Adjustment of cultural custom

<목 차>

- | | |
|---|--|
| <p>I. 연구의 목적</p> <p>II. 인도네시아의 통상환경</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환경 2. 인구 및 언어 3. 종교의 특징 4. 역사와 정치 5. 경제적 전망 6. 대한국 관계 | <p>III. 거래관습상의 시사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성 2. 생활양식 3. 상거래 경향 4. 거래시의 유의사항 <p>IV. 결론</p> <p>※. 참고문헌</p> |
|---|--|

* 수리 CMT (주) 이사

I. 연구의 목적

인도네시아(Republic of Indonesia)는 적도 상에 위치한 섬나라로서 인구가 많고 천연자원은 풍부하나, 사람들이 나태하여 생산시장에서의 목표달성이 지극히 어렵고 부정부패가 심한 전형적인 개발도상국의 한 나라로 알고 있다.

군부가 중심세력을 이룬 독재체제하에서 정치적 자유를 박탈당하고 인권은 유린되며, 종교는 단지 통치도구화 되어 있는 나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의외로 많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연구를 우리보다 많이 하고 있는 선진국에서조차 이 나라를 권력을 가진 군부와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계의 화교와 결탁하여 국가경제를 독점함으로써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특권 계층의 횡포로 절대 다수의 국민이 불만과 불신으로 정부를 혐오하고 있다고 보고¹⁾ 이러한 부정적인 분야에 과장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에 대한 고정관념은 2억의 인구, 17,508개의 도서, 360여 종족, 200여 종에 달하는 언어와 약 350년 동안의 네덜란드 식민통치와 이에 이은 일본의 지배를 받은 역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지난 1945년 독립 이후 매우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하여 왔으며, 비교적 여타 개도국에 비해 정치적 안정성향을 가져온 것 또한 사실이다. 풍부한 지하자원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후진국을 거듭하고 있는 아프리카 제국들과 비교하여 본다면 이는 매우 독특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원인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강력한 통제력을 지닌 군부와 국민들의 정신적 지주역할을 하고 있는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상호 조화를 이루고 국가 이념인 판차실라(pancasila)²⁾를 통해 분열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치적 동질성과 안정을 조화롭게 이루어 낼 수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본다. 실제로 수하르트 대통령의 신질서가 들어선 후 지난 30년간에 걸쳐 경이로운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도 군부³⁾의 확고한 지원 아래 정치적 안정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특히 이러한 시각은 지난 1998년 발생한 소요와 폭동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지 상사 주재원들의 관점은 이와는 다르며, 지난 1980년대의 우리 나라의 학생소요 사태 이상은 아니라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2) Pancasila는 1961년 6월 1일 수카르노가 제창한 인도네시아의 국민철학이자 건국이념으로 다섯가지 기본원리를 가진다. 첫째, 인도네시아의 민족주의(Kebangsaan Indonesia). 둘째, 국제주의 혹은 인도주의(Internasionalisme atau perikemanusiaan). 셋째, 만장일치를 통한 대중합주의 또는 민족주의(Mufakat atau Demokrasi). 넷째, 사회정의(Keadilan Sosial). 다섯째, 전지전능한 신에 대한 신앙심(Ketuhanan yang maha Esa). 등이다.

이러한 다섯가지 원칙은 인도네시아적인 특수성과 세계적인 보편성을 함께 내포한 내용으로 인도네시아 역사의 현실속에서 그 존재의 의의를 가져왔는바, 이는 인도네시아인들 특유의 가치관 즉, 가족중심주의(Keluargaan), 협의주의(Permusyawaratan), 상부상조정신(Gotong-Royong)을 바탕으로 성장·발전하여 구체화된 것으로 신앙주의, 인도주의, 민족주의, 사회정의라는 보편적 사상기초하여 인도네시아의 국가권력과 사회의 제 분야 그리고 모든 인도네시아적 사고를 지배하고 있다.(A. M. W. Pranarka Sejarah Pemikiran Tentang Pancasila, Jakarta : CSIS, 1985. p. 52.)

그러나, 1997년 말부터 시작된 환 사태에 따른 경제불안에서 파생된 수하르트 대통령의 퇴진 등으로 정치적 불안은 지속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으며, 향후 인도네시아의 정치 및 경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지 예측할 수 없게 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시각은 정치적 혼란상황이 지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을 경우 그들의 풍부한 자원, 넓은 영토, 경제개발에 대한 의욕 등으로 21세기 떠오르는 거대한 시장이 될 것이라는 데 의혹을 가지지 않는다.

구매력을 나타내는 많은 인구와 비교적 타민족에 호의적인 국민성 등 인도네시아는 분명 매력적인 시장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정치적으로 어려운 현제도 일본, 미국, 대만 및 각국의 투자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⁴⁾

실제로 인도네시아 현지국 해외 투자는 우리 나라가 제7위를 달리고 있고, 수출 역시 일본, 미국, 싱가포르에 이어 4위를 점하고 있는 수준에 달하며, 1997년 현재 약 300여개의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중요한 지역이다.⁵⁾ 따라서 이들과 유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나라 역시 현재의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간과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인도네시아라 하겠다.

이러한 해외 시장의 진출에 앞서 각 기업들이나, 관련 기관 차원에서의 현지국에 대한 투자환경 분석 및 기업환경의 분석을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지국의 자연환경, 역사 등 문화에서 파생되는 생활습관 및 상관습 등은 간과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사실상 현지국을 대상으로 하는 제반의 통상활동은 현지국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그 중요성이 매우 크며, 특히 인도네시아처럼 다양한 문화와 인종을 가진 국가에 진출할 경우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해외시장 진출이라는 것이 단순한 해외 투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수출입 시장 확보 및 점차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Cyber Trade를 위한 쇼핑물 구축 등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이들 시장을 이미 선점하고 있는 화교 상권과 일본 상권을 상대로 경쟁을 해야하는 우리로서는 더욱 그 필요성이 크바, 본 논문에서는 인도네시아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통상환경을 분석하여 국제통상거래 관습상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인도네시아에서 군부의 영향력은 여타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막강한 편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17,508에 달하는 도서국가이며, 언어와 인종 등 다양성으로 이루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한 나라로 묶을 수 있는 구심점은 군부밖에 없다는 사실에 전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이러한 연유로 국민의 대다수가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다.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자카르타 무역관, 1997. 1.

5) 송민선, "떠오르는 거대시장 인도네시아 진출전략", LG경제연구원, 1997. 4. p. 84.

II. 인도네시아의 통상환경 분석

<표 - 1> 인도네시아의 개관

면적	190만 4,569km ² (한국의 약 19.6배)
인구	1억 9,375만명(1995년 기준)
수도	자카르타(Jakarta) 인구 900만명(1995년 기준)
주요 도시	수라비야(274만명), 반둥(236만명), 메단(190만명), 스마랑(134만명)
주요 민족	말레이계를 중심으로 각 종족별 분포 자바족(33%), 순다족(12%), 마두라족(3.3%), 바딕족(2%) 등 약 360여 종족 분포
언어	인도네시아어(공통어), 각 종족별 언어는 약250여종
종교	이슬람교(85%), 기독교(12%), 기타-힌두교, 불교, 토속신앙 등-(3%)
정치 체제	공화제 대통령 중심제
헌법	1945년 8월 18일 시행
국가 원수	대통령 하비비 간선제 임기 5년
의회	1원제 500의석 임기 5년
내각	총리는 없으며, 의회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
주요 정당	골카르당(직능그룹), 개발통일당, 인도네시아 민주당 등
국민총생산	1,911억 달러(1995년)
1인당 GNP	980달러(1996년)
통화 단위	루피아(Rupiah) 1\$ = 8,000루피아(1998. 10.)
주요 자원	석유, 천연가스, 석탄, 목재, 천연고무 등
주요 공산품	섬유류, 제지, 비료, 식품가공품
주요 농산품	쌀, 커피, 옥수수, 야자유
무역	수출 469억 400만 달러, 수입 418억 4,600만 달러(1995년)
독립기념일	1945년 8월 17일 (UN 가맹일 : 1950년 9월 28일)

자료 : 현대평론집단, 「지구촌 모든 나라 정보」, 세창출판사, 1998. 2.

1. 자연환경

인도네시아는 거대한 군도국가로서 5개의 큰섬(수마트라, 깔리만탄, 술라웨시, 그리고 반이 뉴기아 땅인 이리안 자야섬과 자와섬)을 포함하여 총 17,508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Java와 Madura 두 섬에 총인구의 65%가 집중되어 있는 반면, 7,700여개의 무인도가 주변에 산재해 있으며, 총 길이는 5,120km이다. 한편, 인도네시아라는 국명은 두 개의 그리스어 즉, '복합', '수많은'을 뜻하는 'indos'와 섬을 의미하는 'nesos'에서 기원했다고 한다.

서쪽 섬 가운데 수마트라, 자와, 발리섬의 등줄기는 주로 화산지대로 300여개의 화산 가운데 128개가 활화산이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섬들은 대부분 화산대를 타고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지진활동과 분화(噴火)가 매우 활발하고, 현재 78개가 활화산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화산은 인구가 드문 지역에 위치하여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않으며, 지진활동 또한 그리 많지 않고, 화산활동은 토양을 기름지게 하는 아이러

니를 가지고 있다.

열대우림기후와 열대 계절풍 기후를 띄고 있어 연중 고온 다습하며, 계절은 11월부터 4월까지의 우계(雨季)와 5월부터 10월까지의 건계(乾季)로 나뉜다. 드물지만, 건기에 비가 내리기도 하며, 우기에도 비가 계속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에 내리는 편이다. 천둥은 우기동안 흔한 일이며, 호우는 12월과 1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⁶⁾

2. 인구 및 언어

전체인구는 약 2억으로 추산되는 거대국가로서 총 인구의 65%가 총면적의 7%에 해당하는 자바, 발리, 마두라섬 등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인구의 절반 이상이 20세 이하이다.

인도네시아의 표준어는 바하사 인도네시아(Bahasa Indonesia)⁷⁾라 불리운다. 이들이 원래부터 인도네시아어를 표준어로 채택한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구하는 '다양함 속의 통일(Bhinneka Tunggal Ika)'의 목적 달성을 위해 채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바하사 인도네시아는 교육과 통신의 언어인데, 동부 수마트라에 있는 리아우섬에서 유래되었으며, 1928년 초기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표준어로 채택되었고, 수하르토 대통령 취임 이후 다양한 표기법을 개정하여 영어식 표기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바하사 인도네시아는 공용어로서 주로 사용되며, 영어는 상용어로서 활용되고 있다.

3. 종교의 특징

인도네시아는 단일 국가로서 세계 최대의 이슬람교 신봉국이며, 실제로 인도네시아인들의 85%가 이슬람교도이며, 12%정도가 기독교인이고, 나머지 3%가 힌두교, 불교 및 토속신앙을 믿는다.⁸⁾

한편, 인도네시아의 북부지역인 술라웨시, 말루크, 플로레스, 티무르, 이리안 자야 등의 지역에서는 기독교를 대부분 신봉하며, 우리에게 휴양지역으로 잘 알려진 발리는 힌두교와 토속신앙을 숭배한다.

정부에서는 이슬람교와 기독교, 힌두교, 불교의 종교 휴일을 공식 휴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요일은 인도네시아의 정기 휴일이며, 금요일에는 오전 11시 30분에 문을 닫는데 사원에서 단체로 기도하는 사람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에서 기인한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종교가 이슬람교이지만, 이 나라의 법률은 네덜란드에서 영향을 받은 서구의 형법에 기초한다. 따라서 정교일치(政教一致)와 신법통치(神法統治) 국가임을 고집하는 중동지역의 이슬람국가와 달리 '최고 신(神)에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임을 강조할만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종교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의 기

6) 강석오, 「세계지리(상·하)」, 반도출판사, 1995. 10.

7) 이들 언어는 언어학적으로 말레이시아어와 거의 유사하다고 하며, 실제로 말레이시아인과 대화시에도 거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다만, 10% 정도의 단어가 약간씩 상이하며, 말의 빠르기가 조금 빠른 정도라고 한다.

8) 인도네시아인들은 실제로 이슬람교도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미신과 점치는 토속적 사머니즘에 깊숙히 젖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본정신인 뻘짜실라가 예배의 자유를 보장할 뿐 아니라, 생활윤리와 가치관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라 하겠다.

따라서 기존에 알려진 바와 같이 종교의 자유가 없거나, 기독교도를 탄압하는 일은 공식적으로는 없다. 그러나, 정부 관료나, 사회 엘리트의 대다수가 이슬람교도임은 감안해야 할 것이며, 이들의 신앙은 일면, 토속화된 이슬람을 신봉하는 국가라고 볼 수 있다.⁹⁾

4. 역사와 정치

인도네시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전부터 인류가 생존해온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¹⁰⁾ 2세기 경 따루마너가라 왕국의 출현이 인도네시아 역사를 여는 최초의 왕국이라는 학설이 있다. 이 왕국은 인도 문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되며 이것이 힌두교 및 불교가 인도네시아 영토에 유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7세기 수마트라지역에서 불교인 스리위자야 왕국, Sanjayas 왕국, 또 다른 불교 왕국인 Sailendra 왕국이 출현하였고, 13세기에 북부 Sumatra지역을 중심으로 이슬람 문화 유입되었다. 14세기말에서 15세기 초에 힌두·불교 문화인 마자빠히트 왕국이 출현한다. 수마트라로부터 시작된 이슬람문화는 무역을 통해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지만, 힌두·불교와의 마찰은 거의 없었다.

이후 15세기부터 포르투갈이 향료를 찾아 점차 동진하게 되었고 16세기 포르투갈이 말라카 해협을 장악하여 기독교를 전파하였는데, 유럽에서 가치가 높았던 향료가 풍부했던 인도네시아를 노리던 네덜란드에 의해 식민지가 되었다. 1595년에서 1942년 350여 년간 이어진 식민통치 시대에 많은 독립운동이 있었으나, 실패하였고,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1942년에서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았으나, 일본의 패배로 1945년 8월 17일 독립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재 식민지화 노력 등 혼란스러운 시기를 거쳐 1948년 인도네시아 독립의 영웅이었던 수카르노 대통령이 공화국 독립선포를 하고, 뛰어난 정치수완을 발휘 제3세계의 맹주로서의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1965년 9월에 인도네시아 공산당에 의한 쿠데타 기도가 있었는데, 이때 쿠데타 진압에 큰공을 세운 수하르트 장군은 1967년 3월 대통령 서리에 취임하고 1968년 3월에 수하르트 5년 임기의 대통령 취임하였다. 친서방정책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혁혁한 공을 세

9) 산트리(Santri)라 칭하는 정통 이슬람주의자(fundamentalist)는 인도네시아 이슬람교도의 40%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해상 실크로드가 중국으로부터 베트남 해안선을 따라 남하하여 인도네시아 군도와 말라카 해협을 경유하여 아라비아와 유럽으로 연결되었던 오랜 역사 속에서 힌두교, 불교로 바탕 지워진 문화권에 이슬람을 덧칠하고 그 위에 기독교를 덮어온 터라 이들은 어떤 종교를 강요하기보다는 종교 그 자체를 가지는 것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0) 선사시대의 기록이나, 문헌이 거의 없는 관계로 정확한 역사는 알 수 없으나,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 등을 놓고 볼 때 아주 오래 전부터 인류가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자바섬을 중심으로 발견되었던 자바원인(일명 피테칸트로푸스 에렉투스)을 비롯, 모조케르토인, 솔로인등의 유해와 유물들의 바로 그 증거이다.(KOTRA, 국가정보-인도네시아-, 1995. p. 4.)

운 수하르토는 군부와 이슬람 세력을 효율적으로 다스리며, 30여 년간 막강한 권력을 누렸다. 족벌경제 등 부정부패가 누적되어 1997년 국가부도사태를 맞았다.

결국, 수하르토 정권의 최대 업적이었던 경제발전이 무너지는 것을 계기로 실각, 기술관료 출신의 부통령이었던 하비비에게 대통령 자리를 넘겨주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인 하비비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그리 높지 않은 실정이며, 향후 하비비 정권의 전망은 경제 안정의 회복과 군부의 신뢰를 획득하는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대통령 중심제의 공화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3심제의 사법제도와 의회가 있다. 의회는 국민협의회(MPR : People's Consultative assembly)와 국회(DPR : House of Representative)로 2원화 되어 있다. 선거는 대통령의 경우에는 간접선거를, 국민협의회는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정당은 1971년 7월 제 2차 총선 이후 집권 여당인 골카르(Golkar)를 제외한 9개 정당이 정부의 강력한 권고로 이슬람계 4개 정당은 통일 개발당(PPP : Partai Persatuan Pemnangunan)으로 비이슬람계 5개 정당은 인도네시아 민주당(PDI : Partai Demokrasi Indonesia)으로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집권여당인 골카르당은 근로자, 군인, 여성단체, 농민, 학생 등 사회 각 분야의 직능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 기반이다. 통일 개발당은 회교계 4개 정당이 통합하여 결성하였으며 전체 인구의 85%이상인 회교도를 지지 기반으로 제 2당이다. 인도네시아 민주당은 기독교 계통 및 민족주의 계통의 비회교계 5개 정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에 다소 비판적이며 비교적 야당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인도네시아 국회는 Golkar, PPP, PDI 및 군부의 4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왜냐하면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군부에서 75석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를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군부는 전술한 바와 같이 그 영향력이 매우 막강하다. 이는 17,508개의 섬, 300여 종족, 200여 지역어의 거대한 도시 국가인 Indonesia를 물리적 통제력을 갖춘 군부이외의 어떤 정치 세력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는 아직 이르고 역부족이라는 것이 국민의 폭넓은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군부는 Dwi Fungsi라는 명칭으로 합법적으로 국가 안보와 사회, 정치적 역할의 이중 기능을 가지고 있다. 권력기반의 부실했던 수카르노 전임 대통령은 네덜란드식 다당제의회 민주주의를 마감하고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의 교도 민주주의를 이끌기 위해서 군부의 통제력을 이용했고, 이 과정에서 군부가 직능집단(Functional Group)의 일원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 나라의 혁명기(1945 - 1949)에서 의회 민주주의 경험기(1950 - 1957)를 거쳐오는 동안 무장 이슬람운동을 저지하고 공산당(PKI)의 소요를 진압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어떤 직능집단보다 그 지위가 급격하게 신장되었다. 1965년 9. 30 사태 이후 수하르토 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자카르타의 군사정부에 의해서 이중 기능이 1980년 초반까지 계속해서 강화되어 군부는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 등 국

내의 모든 분야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이후 수하르토와 군부의 관계가 다소 소원해지면서 수하르토는 이슬람 세력을 고무하여 이들로 하여금 군부를 견제하도록 하여 군부와 이슬람 세력간의 역할 분담하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한편, 군 편제는 육, 해, 공군이외에 경찰군의 4군 체제로 되어 있다. 육, 해, 공군은 총 283,000명으로 육군이 215,000, 해병 12,000명을 포함한 해군이 44,000명, 그리고 공군이 24,000명 규모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1963년에 국방, 치안성 산하에 경찰군으로 재편성된 경찰은 12,000명 규모의 경찰 기동 부대를 포함하여 154,000명에 이른다.

이 나라는 의무 병역기간 2년의 선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젊은이들 가운데 군에 지원하려는 경쟁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총 437,000명의 인도네시아 통합군(ABRI)은 실질적인 외부의 적이 없기 때문에 순수한 국가 안보의 기능보다 사회, 정치적 기능 신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인도네시아 군부에 대항하는 게릴라들은 미미한 수준으로 다음과 같다. ① FRETILEN(동티모르 독립 혁명 전선) : 100명 규모의 게릴라들로 소탕기로 무장하고 있다. ② Free Papua Movement(OPM) : 인도네시아령 이리안의 해방을 목적으로 한 게릴라 조직으로 500 - 600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들 중 100명 정도가 소탕기로 무장하고 있다. ③ Free Aceh Merdeka : 수마트라 북단 아체의 이슬람 분리주의자들로 750명 정도가 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5. 경제적 전망

일찍부터 인도네시아의 성장잠재력은 인정받아 왔는데, 인구가 우리의 4배, 국토는 한반도의 8.6배에 달하며, 세계 제2위의 코코넛, 야자, 천연고무의 생산국이고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의 광물과 목재 등 다양한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성장 잠재력은 아직까지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인프라의 미비, 전문인력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인도네시아인들의 구매력이 단시일 내에 크게 성장될 것도 기대하기 어려우며, 특히 지난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는 이 시장에 대한 향후 전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 등 여타 국가들이 이 시장을 신흥거대시장으로 주목하고 있는대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내재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이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대한 시장규모와 잠재력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거대국가로서 여타 동남아 국가들의 인구를 전부 합한 규모와 대등한 크기이다. 여기에다 인구 증가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지만, 2015년경에는 약 2억 5천 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구가 많다고 해서 유효 구매력이 큰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경제위기를 감안

하더라도 향후 2005년경에는 구매력 기준으로 세계 제7위의 거대 시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중·상류층의 증가¹¹⁾와 20세 이하의 젊은 계층이 인구의 50%를 점유하고 있어 이들 시장 전망을 보다 밝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내구소비재의 보급률은 중국보다 떨어지는 수준으로 세탁기 보급률은 1995년 현재 1,000명당 1.5대로 필리핀의 2.6대 보다 낮으며, 중국의 8.7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그러나, 평균 시장 성장률은 TV는 8%, 세탁기는 24%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향후 이들의 시장은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며 특히, 여성들의 교육수준 향상과 이들 국가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비교적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하나인 가정용 전자제품의 수요는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사업환경의 개선

전통적으로 인도네시아는 무역 및 투자분야에 규제가 많은 국가였으나, 최근 들어 여러 가지 규제완화 조치가 취해지면서 시장 및 투자지로서의 매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며, 무역부문과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완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사업환경을 더욱 더 양호하게 만들고 있다.

셋째, 지역거점으로서의 중요성

향후 동남아시아 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아세안자유무역협장(AFTA)의 추진 역시 인도네시아의 시장으로서의 매력을 부각시켜주고 있다. ASEAN¹²⁾ 제국은 향후 2003년까지 역내 관세를 5% 이하로 줄인다는 계획 하에 1993년부터 관세인하 일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동까지 원활하게 하기 위해 AFTA Plus라는 이름의 서비스 교역 자유화 방안도 논의단계이다.

이들 동남아 국가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그 소득계층이 분화하면서 중·상류층을 중심으로 한 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동통된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제품에 대한 구매력이 증대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ASEAN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동남단에 위치하면서 국토가 동서로 넓게 퍼져있어 동남아시아 전역으로의 접근이 매우 용이하며, ASEAN 역내 국가 가운데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들을 제외하면 임금 수준이 가장 낮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현지 내수시장으로

11) 경제전문지 East Asian Executive Report나 Institutional Investor 등에서는 1991 - 1995년까지 자동차 판매가 연평균 15% 증가했으며, 현재 인도네시아의 중·상류층 규모가 약 1,600만명이나 되는 수준이라고 한다.(송민선, 떠오르는 거대시장 인도네시아 진출전략, LG경제연구원, 1997. 4. pp. 10 - 16)

12) ASEAN(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1967년 8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7개국이 결성한 지역협력기구이다. 그 목적은 ① 동남아시아 지역협력의 촉진, ② 외국으로부터의 간접 배제, 역내제국의 평화와 안전 수호, ③ 경제·사회·기술·문화 각 분야에 있어서의 상호협조 등이다. 1976년 2월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개최된 수뇌회의에서 정치적 단결과 중립화를 피하는 일체화선언과 우호협력조약을 조인하였으며, 1977년 8월의 제2차 회의에서는 경제협력 문제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을 채택하였다. 1991년 한국을 완전협력대상국으로 지정하여 미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및 EU와 함께 확대외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최현익 외 3인, 「국제경제의 이론과 현실」, 법문사, 1997. pp. 265 - 266)

서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단일시장 공략을 위한 지역거점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6. 대 한국관계

과거 수카르노 정권이 제3세계의 맹주를 표방하고 외교정책 역시 친공산주의적이고 강경하며 모험주의적 성향을 보였던 것과 달리 수하르트 이후는 친서방적이며 경제 우선적인 실리 위주의 개발외교를 전개하였다.

이들 정부의 기본적인 대외 정책 방향은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비동맹 중립 외교강화, 이슬람 제국과의 협력강화 등으로 특징 지워진다.

미국과의 관계는 경제 군사원조와 활발한 민간 투자로 인해 긴밀한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과의 관계는 최대의 교역 대상국이며, 차관제공국인 일본¹³⁾과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자국 경제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일본에게 경제대국으로서의 성실한 협력자적 자세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 중국과의 관계는 1965년 공산 쿠데타의 배후조정 혐의를 두어 1967년 외교단절을 하는 등 양국관계는 냉각되어 왔다. 그러나 1985년 중국과 직교역을 추진하는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현재는 완전한 교역 대상국으로 대하고 있다.

1966년 영사관계 수립, 1978년 대사관계 수립 후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가 본격화되었는데, 이러한 관계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입장은 UN, ASEAN 및 APEC 등 국제기구에서 협조적이다. 다만, 북한 핵문제 등에 관해서는 전세계적인 비핵확산유지차원에서 외교적으로는 우리의 입장을 소극적으로 지지하고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개발협력의 파트너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경제, 통상관계 강화에 치중하고 있다.

<표 - 2>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정 체결 내용

년 도	내 용
1971. 8.	경제 및 기술협력과 통상증진에 관한 협정
1981. 7.	건설협력 협정
1981. 8.	석탄개발 협정
1983. 8.	천연가스 도입 협정
1987. 6.	입업협정 체결(1987. 7. 20. 발효)
1987. 9.	항공협정 체결(1987. 9. 29. 발효)
1988. 11.	이중과세 방지 협정 체결(1989. 3. 8. 발효)
1991. 2.	투자보장 협정 체결(1994. 3. 10. 발효)

특히 대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지원 증대를 기대하고 있는 이유로 국제사회에서 한국

13) 전체 인도네시아 수출액 가운데 26%가 대 일본 수출이며, 대외 부채 700억 달러 가운데 일본의 부채액수는 270억달러(1995년 기준)에 달하는 수준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8 세계 경제(무역·투자)정보 DB」, KOTRA, 1998.)

입장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1974년이래 경제관계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특히,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협정체결을 통해 우리 나라와의 통상관계는 더욱 긴밀해 지고 있는 현실이다.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비동맹국 의장국이라는 위치를 감안하여 비동맹국 회원인 북한을 고립시키지 않으려는 입장을 가지고 어느 정도 북한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 노력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협력관계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Ⅲ. 거래 관습상의 시사점

1. 국민성

17,000개의 도서와 360여 이상의 종족, 인구 2억의 다민족 국가이므로 다양한 국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으나, 열대 지방에 위치한 데다, 자연에서 식생활의 대부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느긋한 성격을 갖고 있다.

국민의 90%가 이슬람교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에 대한 믿음이 이러한 느긋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¹⁴⁾ 그러나, 이러한 인도네시아인들의 사고 방식은 안이하고 노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계획보다는 현실의 만족을 중시하며, 이에 따라 저축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계의 주축인 화교와 사회의 지도층을 이루는 일부 인도네시아인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며, 변명을 잘하는 편이다. 또한 자존심이 매우 강한데다, 다른 사람을 많이 의식하는 편으로, 남에 대한 수모를 잘 견디지 못하고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종종볼 수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오랜 식민지 역사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난 350여 년간의 네덜란드 식민 지배와 일본의 통치를 받아왔기 때문에 주체적이라기 보다는 비교적 수동적인 타인 의존적인 사고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인들의 태도에 대하여 변명에 능하고 부지런하지 못하며 모든 면에서 불명확하다는 부정적인 관점과 보수적이며 온순하고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심취되어 그로 인해 자기 주체적이기보다는 모든 것을 신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낙천적일 수 있고 치열하게 살지 않고, 서로 다투지 않고 자기보다는 남을 배려하려는 측면의 긍정적인 관점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수줍어하는 심성이다 보니 소극적이고 치열하게 살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보수적인 인도네시아인들의 보수성은 어떤 정확한 논리를 가지기 때문에 나타나 는 보수성향이 아니라, 수줍어함으로써 논리가 없는 보수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14) 실제로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인샬라(Inshallah : 알라신이 허락한다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데, 이들에게서 인샬라는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든 그렇지 않은 모든게 신의 뜻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에 대하여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식이다.(박종산 외, 세계화와 국제무역, 동성출판사, 1997. pp. 268 - 269)

것이다. 한편,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줄 알며 참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심성도 일면 엿보이는데, 인도네시아인들이 변명을 잘한다라고 하는 사실도 자신이 잘못하였을 때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창피한 상태를 벗어나려고 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원래의 원주민은 주로 말레이 인종으로서 흑인혈통과 Melanesoid가 혼합된 Proto와 Deutero였으나, 군도의 특성상 다양하게 구분되는 바, 자바족 33%, 순다족 12% 등 다수를 차지하는 70종족을 포함 360여 종족과 언어와 습관이 다른 19가지 문화권이 혼재해 있다. 이들은 주로 발리섬 서쪽에 있는 큰 부락과 동쪽의 작은 부락들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상이한 생활습관과 관습을 가지는 바¹⁵⁾ 이들 가운데 사회의 큰 영향력을 갖는 종족들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⁶⁾

(1) 자바족

인도네시아의 다수 종족으로 정치 지도자들의 대부분이 자바족 출신이다. 대부분 이슬람교를 신봉하지만, 중동의 이슬람과 달리 힌두교의 영향을 크게 받은 현지의 자바 종교의 영향을 받은 토착화된 이슬람교를 신봉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슬라마탄¹⁷⁾이 일상생활에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이 이들에 대해서는 슬라마탄을 존중해주는 것이 좋다. 이들의 성품은 비교적 온순하며, 예절을 잘 지키는 편이기는 하지만, 태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이들과 대화 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2) 순다족

대부분의 행정관료가 순다족 출신인데 이슬람교를 신봉하며, 이슬람교의 계율 즉, 1일 5회의 기도와 라마단의 뿌야사(단식 기간)등을 좀더 엄격히 지키는 편이다. 성격은 온순한 반면, 수다스럽고 이혼율이 높은 편이며, 여성들은 사치를 즐기는 편이다. 피부가 비교적 희고 여타 종족에 비해 깨끗하기 때문에 일반 직공보다는 서비스 계통에 많은 종사율을 보이고 있다.

(3) 바딱족

50%이 이슬람교이고, 나머지는 기독교, 카톨릭이다. 바딱어는 까로, 파크파크 등 4개의 방언으로 이루어지며, 결혼은 씨족(마르가)과 씨족간의 결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도시를

15)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러한 종족들의 다양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설명하곤 한다. 복잡한 장소에서 자신의 발이 남에게 밟혔을 경우, 자와족이면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 모아 놓고 상황을 설명하고, 그가 잘못이 없고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결론을 도출해낸다. 그러나, 바딱족이면, 크게 화를 내고는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것이고, 발리인인 경우 기도를 하며, 부기스 또는 마두라사람인 경우에는 즉시 밟은 사람을 때린다. 그리고 빠당인인 경우에는 대가의 무마조건으로 돈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이다.

16) <http://user.chollian.net/~jaya63/data/culture.htm>

17) 슬라마탄이란 영혼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슬라마탄은 자신들의 주변에 있으면서, 성공, 행복, 질병, 죽음 등을 가져다준다고 믿는다.

제외한 지방의 바깥쪽은 결혼의 자유가 크지 못하다. 이들 종족은 성격이 비교적 공격적이며 거칠고 투박하지만, 체구가 크고 리더십과 진취적인 성향이 있어 직장의 매니저급 등의 직업은 갖는 경우가 많다.

(4) 미낭까바우족

일명 빠당인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이고, 인도네시아인 가운데 이슬람교 교리에 가장 충실한 종족으로 알려져 있다. 빠당음식점은 인도네시아에서 잘 알려진 현지음식으로 패스트푸드 형식으로 신속하고 먹을 수 있고, 쇠고기 장조림, 닭튀김, 야채, 고추장 종류가 있어 음식 맛이 맵고 독특하여 비교적 우리의 입맛에 잘 맞는다고 한다.

이들 종족은 사업수단이 좋아 화교상인에 뒤지지 않을 정도여서, 자카르타는 물론 전 인도네시아에 자신들의 고유문화인 빠당음식을 소개시키고 있고, 명성있는 기업인의 대부분이 이곳 출신이며, 모계사회라는 특징을 가진다.

2. 생활양식

(1) 가족생활

인도네시아에서의 결혼연령은 지방으로 갈수록 낮아서 13 - 15세의 조혼 풍습을 가지며,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결혼 지참금을 목적으로 한 결혼도 빈번한 편이다. 한편, 이들은 이혼율도 높은 편인데, 이혼이 많은 것은 남성우위의 이슬람 사상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실제 생활에서도 결혼과 이혼이 자유로운 편이다.¹⁸⁾

그러나, 정부의 각료를 포함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들쭉처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결혼과 이혼에 있어 반드시 상사와 상의를 하거나 특히 이혼의 경우에는 상사의 결제를 얻는 것을 관례화하고 있을 정도라는데 주의를 하여야 한다.

가정에서의 의사결정권은 중·하류층의 경우에는 남성이 가지지만, 상류층으로 갈수록 대개 여성들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주택임차료 결정시 집주인인 남성이 수락하였다 고 하더라도 나중에 부인이 거절하면 허사로 돌아가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한다. 또한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인 부부를 초대할 경우 남성만을 초대하는 경우 초대를 거절하는 경향도 크다.

(2) 식사 및 초대

식사초대에는 반드시 응하는 것이 예의이며, 이러한 초대의 거절은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외식문화가 발달해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음식점은 물론, 중국, 일본, 서양식 음식점 등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초대할 경우 미리 상대방이 좋아하는 식당을 파악하여 정하는 것이 좋

18) 1991년도 기준 결혼 1,388,364명, 이혼 61,151명, 재혼 1,186명(KOTRA, 국가정보, 1992.)

다.

약속시간은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으며, 참석숙자를 사전에 통보하여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방을 위해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좋고, 결혼식 등에 초대될 경우에는 축하화환을 준비하는 것이 무난하다. 한편, 타인을 초대할 경우에는 이슬람을 믿는 인도네시아인일 경우 돼지고기는 먹지 않으므로 주의하고 사전에 좋아하는 음식 등을 알아보고 예약하여 통보하는 것이 관례이다.

날씨가 더운 관계로 음주문화는 크게 발전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음료수를 준비하는 것이 좋으나, 화교들의 경우에는 약간의 술은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맥주나 약한 카테일 정도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폭음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3) 선물

선물이란 '세일즈맨의 구급약'¹⁹⁾이라는 말처럼 인간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선물을 받고 기분 나빠할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선물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주는 것을 삼가며, 상대방이 부담가지 않고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물건이면서 정성을 나타낼 수 있으면 좋다. 인도네시아 현지국 방문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산 인삼, 외국과자 등을 선물하는 것이 좋고, 시계, 지갑, 인삼차 등도 무난하다고 할 수 있다.

(4) 종교, 금기사항

원칙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국민의 85%가 이슬람교를 신앙으로 가지고 있으며, 12%의 기독교도, 기타 3%가 힌두교와 기타 토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야만 한다. 즉, 이슬람교가 국교라고 할 수는 없지만 90%가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문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국가의 고위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슬람이어야 하는 비공식적 조건이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이슬람에 대한 비판은 피하는 것이 좋고, 타종교와 비교하는 것은 상당한 결례에 해당한다. 특히, 금요일 오전에는 이슬람교도들의 예배가 있어 방문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방문을 한다고 해도 만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다인종, 다언어, 다문화의 사회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하나의 인도네시아를²⁰⁾ 상당히 강조하는 편이지만, 실제로 인종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과 차별이 있다.²¹⁾ 따라서 사전에 상대방의 종교와 종족에 대하여 알아두는 것이 유리하다.²²⁾

19) 박종신 외, 「세계화와 국제무역」, 동성출판사, 1997, p. 258.

20) 인도네시아에서는 해마다 독립기념일에 집회를 열고 청년의 맹세(Sumpah pemuda)를 외치는데 여기에는 하나의 조국 인도네시아, 하나의 국어 인도네시아어, 하나의 민족 인도네시아 민족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간다.

21) 인도네시아에서 최근에 발생한 중국인 학살사건은 순다족이 주축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들 순다족과 아체족 등 일부 종족은 상당히 배타적인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5) 대인관계

인도네시아인에 대한 호칭은 남자는 바크-Bak-(Mr.) 여자일 경우 이부-Ibu- (Miss, Mrs.)로 부르면 무난하다. 인사는 악수로 주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현지인과의 대화시 절대로 화를 내지 말아야 하고 작은 목소리로 미소를 띤 표정을 의식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인들은 큰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상대방이 화가 난 것으로 판단한다.

현지인과의 대화시에는 느긋한 자세로 대화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하며, 확답을 피하는 것이 좋고, 상대방 자존심을 자극하는 말과 행동은 절대적인 금기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성이 비교적 느긋하기 때문에 서두르거나 급한 표시를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서양에서는 친근함의 표시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포옹이나 키스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의 이러한 행동은 아주 무례한 사람으로 간주된다.

한편, 약속을 당사자에게 직접하는 것은 결례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전에 비서를 통하여 예약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약속시간은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느긋하게 기다린다는 식의 인내가 필요하다. 약속시간이 늦는 경우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미안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화를 내기보다는 관습이라 생각하고 이해하는 편이 좋다.

3. 상거래 경향

(1) 거래 관습

인도네시아인은 거절의 표시를 정확히 하지 않으며, '두고 보자'는 식이나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형태의 답변은 거절의 표시로 받아들이면 정확하다. 또한 일단 약속을 해놓고도 이에 대하여 잘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며, 거기에 따르는 변명이 많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인들과의 거래시에는 구두에 의한 계약보다는 서면에 의하는 것이 좋으며, 이러한 서면도 상세한 형태로 작성해두는 것이 향후 이와 관련된 문제발생시 유리하게 대처할 수 있다.

또한 모계사회의 관습이 아직도 남아 있어 상류계층으로 갈수록 여성의 발언권이 세기 때문에 중요한 의사결정에서는 여성의 권한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에게 이러한 문제를 주지시키는 것이 안전하다.

(2) 제품선호 성향

경제개발 이후 인도네시아의 시장은 여타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고급 제품 시장과

22) 인도네시아 인들은 단위의 사회생활을 매우 중요시하며, 이름에 직함이나 어떤 타이틀을 붙이기를 좋아한다. 또한 각 지역마다 이름에 특성이 있어 그 사람의 출신 지역 및 사회적 신분 등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 이름 끝에 "O"가 들어 있으면, 대부분 자와족이며, 이름 앞에 "HAJI"가 들어가면 대부분 이슬람교도이다.

중저가 제품 시장으로 양분되어 있다. 고급 제품 시장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개방이 된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의 일류 Brand의 대부분이 현지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일류브랜드에 대한 선호경향이 매우 크다. 반면, 중저가 제품의 경우에는 가격이 제품선택의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가격이나 약간의 차이에서는 한국산보다 일본산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²³⁾

(3) 상권

인도네시아의 경제는 75% 이상이 중국인 화교자본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거래에서 화교를 만나게 된다. 이곳의 화교들은 대부분이 중국인 2 - 3세로서 중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현지화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화교들과의 거래에는 신뢰가 필요하고 인도네시아 화교들은 계산에도 매우 밝은 편이다. 따라서 중국상대로 거래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난하다.

4. 거래시의 유의사항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거래관습을 가지는 곳이 인도네시아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이들과의 거래시 주의해야 할 점을 간략히 기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식사 때나 선물을 줄 때는 가급적 공개된 장소를 피하고 반드시 오른손을 이용해 야만 한다. 또한 상대방과의 대화시 특정 인물이나 물건을 손으로 지칭하지 말아야 하며, 큰 모션을 취한다든가 목소리를 높이는 일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오만한 행동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가급적 삼가야 한다. 상대방과의 대화시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거나, 체면을 손상시키면 그 사람은 가장 큰 모욕을 당한 것을 생각한다.

둘째, 인도네시아인에게 있어 가정이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대화 주제로 삼으면 업무적인 만남에서 나타나는 어색한 느낌을 지울 수 있으며, 개인신상에 관한 질문(종교, 인종, 출신지역 등)은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은데, 이는 개인신상에 의해 자기 체면에 손상되는 것을 우려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이슬람에 대한 비판과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은 금지사항이라는 점을 명심해야만 한다.

셋째, 상거래에서 교섭을 할 경우 비록 상대방과 의견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상위(相違)점을 간접적·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성향이 있고, 가격홍정을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백화점 등 몇몇 장소를 제외하고는 무엇이든지 홍정이 가능하다.

또한, 시간관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협상에 임함에 있어서도 시간을 정하고 결정을 한다든지 하면 궁지에 몰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사 여유를 가지고 상담에 임하여야 하며, 상대가 시간에 쫓길때까지 기다려 마지막에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익숙하다.

한편, 계약이 체결되어도 이행여부는 인살라(Inshallah : 알라신이 허락하신다면)식이므

23) 실제로 현지 거래상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한국산 제품이 일본산 제품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20 - 30% 정도가 저렴해야만 제품의 경쟁력이 있다고 한다.

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계약불이행은 신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넷째, 행정체제는 상당히 낙후된 편으로 관료적이며, 비리가 노골적이며, 각종 비리행위가 공공연하게 성행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활동시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커미션을 항상 10 - 20% 정도를 사전에 계상해 두지 않으면 손실이 발생할 정도로 관례화 되어 있다.

다섯째, 인도네시아인은 머리에 영혼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귀여움의 표시로 어린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린아이의 경우라도 머리를 만지는 것은 절대적인 금기사항이다. 또한 왼손은 불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수, 서명 등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는 이들의 식사습관과 관련이 깊은데,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인들이 음식을 숟가락, 젓가락, 포크 등의 도구를 사용하는 대신 오른손을 사용하는 반면, 용변을 보고 나서 뒷처리를 왼손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자카르타 등 대도시에서는 악수가 보통의 인사방법이지만, 이들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아직도 머리를 숙이는 인사방법이 보편적이며 예의를 차린 인사방법으로 간주된다.

V. 결 론

인도네시아의 속담 가운데 '인도네시아를 한번 방문한 사람은 다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게 된다.'라는 것이 있다. 이는 우기와 건기가 있는 해양성 열대 기후로 연중 무더운 나라이지만 국토 곳곳에 널려있는 바나나, 파파야, 코코넛 등 열대성 과일이 있고 온순하며 남을 배려하는 심성의 인도네시아인이 있는 이 나라를 다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도네시아는 적도 상에 위치한 섬나라로 인구가 많고 천연자원은 풍부하나 사람들이 나태하여 생산현장에서 목표달성이 어렵고 군부가 중심세력을 이룬 독재체제하에 정치적 자유가 없고 종교는 단지 통치 도구화로 되어 있는 나라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물질 세계보다 정신 세계의 가치를 우위에 놓고 있는 뿌리깊은 종교 문화를 가진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자칫 소홀히 할 수 있는 훌륭한 정신적 유산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나라이며 모든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고 피조물에 지나지 않으며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굳은 믿음이 있는 나라이다.

이러한 나라에서 외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성공적인 Business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요소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우수한 브랜드 이미지, 좋은 품질 그리고 효율적인 판매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3가지 요소는 인도네시아시장 외의 다른 시장에서도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에게 좋은 브랜드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는 고객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객에 맞는 서비스체제를 구축하고 만족스러운 고객서비스를 통

해 좋은 브랜드 이미지를 남겨야 한다. 이와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된다.

한국 기업들은 인도네시아를 아직도 경제수준이 낙후된 저기능, 단순제품의 시장으로만 생각하지만, 전 세계의 유명 브랜드들의 각축장이 되어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좋은 품질만이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다.

효율적인 판매망을 구축하는 데는 좋은 합작 파트너 선택이 중요하다. 국토가 넓고 지역마다 다른 소비특성을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초기에 한국기업이 성공적으로 진출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현지 전문가나 탁월한 현지 파트너를 통해 판매망을 구축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독자적인 입지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적 기본요소에 앞서 인도네시아인들의 국민성 및 상관습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 그것은 Business가 결국은 인간과 인간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상관습과 국민성을 하나의 문화로서 인정하고 우리의 문화관습과 조정할 수 있을 때만이 인도네시아인들과의 진정한 Business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실업자 문제와 빈부격차의 증대 등의 사회문제가 크며, 정치적으로 민주인사에 대한 탄압, 정권 내부의 부정부패의 증대, 소수민족의 인권탄압 등의 문제가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환 사태, 정치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자원, 넓은 영토, 구매력을 나타내는 많은 인구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21세기에 떠오르는 거대한 시장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인도네시아에 대하여 보다 더 많은 연구와 성공적 진출을 위한 기업체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지금 이 시점이 인도네시아 경제가 회복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사전에 바탕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한다.

참고 문헌

1. 국내문헌

KOTRA, 국가정보-인도네시아-, 1995.

강석오, 「세계지리(상·하)」, 반도출판사, 1995. 1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8 세계 경제(무역·투자)정보 DB」, KOTRA, 1998.

동남아 정치연구회, 「동남아정치입문」, 박영사, 1991.

박종신 외, 「세계화와 국제무역」, 동성출판사, 1997.

송민선, 「떠오르는 거대시장 인도네시아 진출전략」, LG경제연구원, 1997. 4.

신윤환, 「노동의 취약성과 국가의 억압적 통제 -수하르토 체제하의 인도네시아 사례 연구-」, 『아시아 문화』,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 연구소, 1990.

- 신종안, “인도네시아 외교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양승윤, 「인도네시아 정치론」, 명지출판사, 1990.
- 원용희, 「지구촌 문화사냥」, 대왕사, 1997. 8.
- 원필현, “정치문화적 관점에서 본 독립 후 인도네시아의 정치발전에 관한 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이병구, “뻘짜실라(Pancasila)의 인도네시아 국민통합 기여도에 관한 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 장영준, 신무역용어사전, 학문사, 1996.
- 전경수, 「문화로 풀어보는 무역 방정식」, 미래인력연구센터, 1996. 10.
- 최현익 외 3인, 「국제경제의 이론과 현실」, 법문사, 1997.
- 현대평론집단, 「지구촌 모든 나라 정보」, 세창출판사, 1998. 2.

2. 외국문헌

- A. M. W. Pranarka Sejarah Pemikiran Tentang Pancasila, Jakarta : CSIS, 1985. p. 52.
- Clark D. Neher Politics in Southest Asia, Schenkman Publishing Compauy. 1979.

3. 기타

- <http://user.chollian.net.net/~jaya63/data/economy.htm>
- <http://worldtour.co.kr/asia/indonesia/>
- <http://www2.nownuri.net/user/p/pandawa.html/indo1.htm>
- <http://www2.nownuri.net/user/p/pandawa.html/indo2.htm>
- <http://www2.nownuri.net/user/p/pandawa.html/indo6.htm>
- <http://www2.nownuri.net/user/p/pandawa.html/indo7.htm>